

# 제주의 용암 숲, 꽃자왈



정 광 중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  
jeongkj@jejunu.ac.kr

## 1.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제주의 용암 숲, 꽃자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꽃자왈이 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곳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은 꽃자왈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꽃자왈은 제주도민들의 오랜 세월 삶의 근거지였다. 외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꽃자왈은 마치 오랜 세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숲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후부터 선사시대는 물론이고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의 공동체의 형성·발전과 더불어 거주공간의 확대에 따른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 말하자면, 꽃자왈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을 떠받치며 대다수 공동체의 존립을 가능케 한 공공 자원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꽃자왈에 대한 인문 지리학적 관심사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꽃자왈을 어떻게 인지하며 활용해 왔는지, 그 결과 현시점에서는 꽃자왈 내부에 제주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흔적(자원)이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 있는지, 또한 그 흔적의 특징과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그것들은 어떠한 가치 부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무게를 두어 조사하고 접근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인하여 앞에서 지적한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과거 제주도민들의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만을 스크린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2. 꽃자왈의 개념과 분포

### 1) 꽃자왈의 개념

먼저 꽃자왈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자. 꽃자왈이란 용어는 송시태·고기원·윤선의 공동연구(1996 : 68)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이어서 제주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중산간지역 종합조사’라는 행정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제주도, 1997 : 156).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꽃자왈의 개념 정의는 송시태의 박사학위논문(2000)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꽃자왈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진전되었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꽃자왈은 표준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제주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제주어사전(濟州語辭典)』(개정증보판)에 따르면,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09 : 83), 흔히 축약해서 사용하는 ‘자왈’도 똑같은 의미로 풀이해 놓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 729-730). 제주도민들은 흔히 꽃자왈을 ‘꽃’과 ‘자왈’의 두 용어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같은 문헌에서 ‘꽃’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숲’ 또는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고지’와 같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 83).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꽃자왈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목경관(草木景觀)과 수목경관(樹木景觀)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 진전된 꽃자왈의 개념은 지리학 분야의 송성대가 제시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송성대는 “꽃자왈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곳(洞藪, 磊林)과 토심(土深)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磊野 :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들판)이 결합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송성대, 2000 : 93-101). 이처럼 지리학적 측면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않았지만, 꽃자왈 지대에 나타나는 식생과 토양이라는 두 가지 자연경관 요소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제주도의 지질여행』에서는 꽃자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꽃자왈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박기화 외, 2006).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표의 70%는 아아 용암(aa lava: 표면이 매우 거칠고 투박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암석으로 덮여 있으며, 이처럼 아아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에는 두꺼운 클링커 층(clinker layer)이 형성된다. 이 클링커 층이 지표에 노출된 지역은 빗물의 투수가 잘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꽃자왈이라 부른다. 이런 클링커 층은 지하에도 많이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지하수가 들어 있다”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박기화 외, 2006 : 43). 이처럼 지질적 특성을 전제로 한 꽃자왈의 설명에서는 지표층을 형성하는 구성 물질(암석)이나 그것의 분포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꽃자왈의 개념을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연구자는 위에서 지적한 송시태 · 고기원 · 윤선이다. 이들은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덤불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없는 토지(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라 이해하면서, 꽃자왈 지대의 지질적 특성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꽃자왈 지대의 잡석들은 대부분 자갈에서부터 암괴 크기에 이르는 스큐리아(scoria), 화산탄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의 용암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잡석들은 다공질이고 매우 각지지(very angular) 않으며 부분적으로는 로피(ropy) 또는 꼬인(twisted) 구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꽃자왈 지대는 스큐리아류(scoria flow) 또는 화성쇄설류(pyroclastic flow)에 의해 운반된 자갈과 더불어 화구로부터 방출된 화산탄 및 화산자갈이

뒤섞여 쌓인 각력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송시태 · 고기원 · 윤선, 1996 : 68). 나아가 송시태는 제주도에서 속칭 꽃자왈이라 부르는 지대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아 용암류라는 용어 대신에 ‘꽃자왈 용암류(gotjawal lava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송시태, 2000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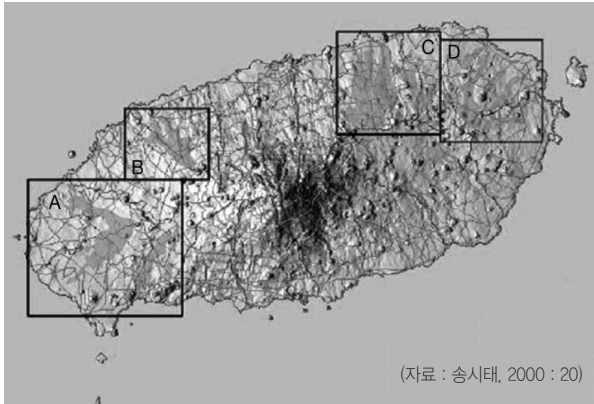
이처럼 3인이 내린 꽃자왈의 개념 정의는 지질학의 심층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했던 사전적인 의미나 지질적 특성만을 전제한 개념 정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문적 ·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꽃자왈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더 정련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질학적인 관점의 새로운 개념 정의는 전용문 등(2012)이 행한 연구결과에서 확인된다. 전용문 등은 특히 기존의 꽃자왈의 정의가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분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것을 “용암의 조성 및 성인에 상관없이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분포하고 있으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재정의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전용문 외, 2012 : 433).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꽃자왈 지역의 개발 반대와 보전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배경을 발판삼아, 꽃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에서는 꽃자왈을 ‘용암의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얽혀 있고 다양한 동 · 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효철, 2011 : 92, 재인용). 또한 2007년에 설립된 꽃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꽃자왈을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점성이 큰 암괴상 용암들이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식생이 양호하고 하부는 수십 겹의 용암층이 시루떡처럼 쌓여 있어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꽃자왈공유화재단, 2012). 이들 개념 정의에서는 지질학적 · 식물학적 특성을 전제하면서도 생태적 중요성을 가미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2) 꽃자왈의 분포

그렇다면, 이상에서 정리한 꽃자왈의 개념과 특성을 전제할 때 제주도 내에서도 꽃자왈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검



<그림 1> 제주도 내 꽃자왈의 분포



<그림 2> 꽃자왈 내 수목경관

토해 보자. <그림 1>은 제주도내의 꽃자왈 분포도이다(송시태, 2000 : 20).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분포범위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본격적인 학술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꽃자왈이 주로 중산간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발 20~800m 사이의 해안지역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과 산간지역까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해발 600m 이상의 산간지역에서는 분포범위가 아주 적게 나타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송시태, 2000 : 20). 그리고 제주도의 전체 면적에서 꽃자왈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110km<sup>2</sup>이며, 이 중 제주시에 52km<sup>2</sup>, 서귀포시에 58km<sup>2</sup>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꽃자왈공유화재단, 2012).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꽃자왈을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구좌성산꽃자왈(그림 1D), 조천함덕꽃자왈(그림 1C), 애월꽃자왈(그림 1B) 및 한경안덕꽃자왈(그림 1A)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구좌성산꽃자왈과 조천함덕꽃자왈은 동부지역에, 그리고 애월꽃자왈과 한경안덕꽃자왈은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서로 대비된다. 이들 꽃자왈은 용암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다시 구좌성산꽃자왈은 중달한동꽃자왈, 세화꽃자왈, 상도-하도꽃자왈 및 수산꽃자왈로 나눌 수 있으며, 조천함덕꽃자왈은 함덕와산꽃자왈, 조천대흘꽃자왈, 선흘꽃자왈로 세분된다. 또한 한경안덕꽃자왈은 월림신평꽃자왈과 상창화순꽃자왈의 2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꽃자왈의 명칭은 지역명(읍면명 및 리명)에 기준을 둔 것이다.

이상의 꽃자왈 중에서도 특히 월림신평꽃자왈은 총 길이가 12.5km로 제주도내에서는 가장 길게 확인되는 꽃자왈이다(송시태, 2000 : 21-31). 또 제주도지방기념물(제10호)인 동백동산이 위치하는 선흘꽃자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454m, 조천읍 선흘2리 소재)에서 흘러나온 용암류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가 거문오름에서부터 폭 1~2km를 유지하면서 북쪽으로 7km 정도의 범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2004 : 12, <그림 2> 참조).

### 3. 제주선조들의 꽃자왈 인식

제주의 땅에서 먼저 살다간 선조들은 꽃자왈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를 검토하는 작업은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난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길 하나를 찾아낸다면 이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먼저 살다간 제주의 선조들이 꽃자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뒤를 잇는 후세들의 인식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사고와 인식체계는 선조로부터 후세들에게 끊임없이 학습되며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읍 김녕리에는 해녀들에 의해 전승되는 민요 중 ‘해녀 노젓는 소리’가 있다. 이 민요의 노랫말 중에는 “노(櫓)가 부러지면 선흘꽃에 끈은 나무가 없을 소냐?”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노랫말을 해석해보면, 해녀들이 물질(잡



수작업)할 때 타고 나가는 배의 노가 부러지더라도, 선흘 꽃자왈에 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노의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해녀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물질' 행위는 때에 따라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 먼 바다까지 타고 나가는 배의 노가 부러지더라도, 곧은 나무들이 많은 선흘 꽃자왈에 들어가서 새로운 노의 재목감을 구해오는 것은 물질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의미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제는 선흘꽃자왈에 언제든지 노를 만들 수 있는 크고 곧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민요가 후세대에게 계속 학습되며 전승되는 문화의 산물이라면, 노랫말을 통해서도 선조들의 꽃자왈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는 제주목(濟州牧)의 산천(山川)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녕곶(金寧藪, 김녕곶, 제주성 동쪽 55리에 위치, 둘레 50여리), 고막곶(尙馬藪, 제주성 동쪽 79리에 위치, 둘레 20리), 개리모살곶(介里沙藪, 제주성 서쪽 75리에 위치), 켈트르곶(怪叱坪藪, 제주성 동남쪽에 23리에 위치), 맞가리곶(末叱加里藪, 제주성 동쪽 31리에 위치) 등의 꽃자왈 관련 지명이 등장한다. 또 같은 책에 정의현(旌義縣)의 산천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한뜨리곶(大橋藪, 정의현 동쪽 17리에 위치)과 한곶(大藪, 정의현 남쪽 4리에 위치)이 등장한다. 이들 지명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꽃자왈이거나 꽃자왈 주변에 위치하는 숲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지도나 고문헌에 등장하는 '곶(藪)' 지명은

오늘날의 꽃자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날의 꽃자왈을 의미하거나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는 숲을 의미하는 지명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뿐만 아니라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를 비롯한 『남환박물(南宦博物)』(이형상, 1704년),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이원조, 19C 중반) 등 여러 종류의 『지리지(地理誌)』에도 등장한다. 이와 같이 탐라나 제주를 기록한 여러 지리지에 꽃자왈이나 그 주변의 숲 지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일면 꽃자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년) 내의 「한라장축(漢拏壯囑)」이라 명명된 제주 고지도이다. 이 고지도에도 꽃자왈을 시사하는 지명과 구체적인 지역이 표시되어 나타난다. 먼저 지금의 조천읍 조천·선흘·와흘·교래리, 구좌읍 송당·세화리, 성산읍 수산리 등 주변지역이 여러 오름(기생화산)들과 함께 한라산 방향에서부터 해안 저지대까지 거대한 숲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마을이 나타나는 곳은 말하자면, 조천함덕곶자왈과 구좌성산곶자왈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 내에 꽃자왈과 관련되는 지명을 살펴보면, 저목수(楮木藪, 닥남곶, 제주시 회천동), 우수(筍藪, 우진곶, 조천읍 선흘2리), 고마수(尓馬藪, 고마곶 또는 고막곶, 구좌읍 종달리)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지점에 숲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외는 반대로 한림읍 금악리, 한경면 저지·조수리, 안덕면 덕수·동광·서광·광평리 등지에도 주변의 여



<그림 3> 「한라장축」에 표현된 꽃자왈



<그림 4> 「해동지도」에 표현된 꽃자왈

러 오름과 더불어 검은 숲이 대상(帶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곧, 한경-안덕곶자왈 지역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4>는 『해동지도(海東地圖)』 내의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1750년경)인데, 이 고지도에서도 곶자왈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조천읍 선홍2리의 우장수(筊長藪, 우진곶)를 비롯하여 구좌읍의 저목수(닥남곶), 김녕수(짐녕곶), 묘수(貓藪, 켓드르곶, 구좌읍 한동리) 및 이마수(고막곶) 등의 지명이다.

이처럼 여러 고지도에도 곶자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명을 표현하거나 또는 커다란 숲(곶자왈)을 연결된 형태로 표현한 것은 비록 관(官)에서 제작된 특별한 용도의 고지도라고는 하나, 제작과정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일정한 지리적 정보가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곶자왈의 존재를 표현해야만, 관에서 행하는 목마장 경영이나 각종 자연자원을 특산물로 수집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마장 경영과 같은 국가적인 대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농경지에의 피해나 삼림의 위치에 따른 우마의 손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곶자왈과 같은 큰 숲의 존재는 평소 현지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리적 정보가 명확히 반영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 4. 나가며 : 곶자왈의 인문 지리학적 가치

제주 곶자왈의 인문 지리학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로 곶자왈은 제주의 자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 자체는 오랫동안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활용해온 공공자산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곶자왈의 공공 자산적 가치는 앞으로도 현세대는 물론이고 후세대들이 두고두고 깊게 인식하면서 파괴적인 이용으로 치닫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보존적 자산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자산으로서의 곶자왈은 쉽게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앞으로 곶자왈은 제주 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로 알리는데 핵심적인 홍보용 가치를 띠고 있다

는 점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입지를 넓히면서 전 세계에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및 세계지질공원(2010) 등으로 존재적 가치를 높여왔다. 따라서 그동안 곶자왈의 존재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곶자왈의 독특한 생태적 구조와 특성은 물론이고 그 내부에 잔존하는 생활문화유적(자원)을 심분 활용하여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성 대표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는 곶자왈에 잔존하는 생활문화유적 또는 생활문화자원(들솅가마, 1회용 솅가마 터, 솅막, 산전, 노루통, 머들[경작지내 돌무더기], 동굴유적지[선사시대 일시적 주거지])은 제주도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 자원적 가치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을 활용하는데 있어 이들 생활문화유적(자원)의 훼손과 파괴가 동반해서는 곤란하다. 다시 말해 곶자왈 내부의 생활문화유적(자원)은 현세대와 후세대들의 생태체험과 문화체험 등 체험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무차별적 이용에 대한 반면교사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

#### ♣ 참고문헌

- [1] 김호철, 2011, "제주의 허파 곶자왈"(곶자왈공유화재단, 2011 곶자왈 생태 교육교사 강의보고서), 91-124.
- [2] 박기화 · 안주성 · 기원서 · 박원배, 2006, 제주도 지질여행(증보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주도발전연구원.
- [3] 송성대, 2000, "지리적 기초", 복제주군지(상), 복제주군, 93-101.
- [4] 송시대 · 고기원 · 윤선, 1996,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송골구조와 곶자왈 지대에 관한 연구(Ⅰ)"(대한지하수환경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자료집), 68-69.
- [5] 송시대,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 [6] 전용문 · 안웅산 · 류춘길 · 강순석 · 송시대, 2012,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 예비연구 결과", 지질학회지 48-5, 425-434.
- [7] 제민일보곶자왈특별취재반, 2004, 제주의 허파 곶자왈, 도서출판 아트 21.
- [8] 제주도, 1997,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 [9]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어사전(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 [10] 곶자왈공유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ejustrust.net>).